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GENTLEMAN'S GUIDE TO VICE AND VIRTUE

가제 : 선과 악을 대하는 신사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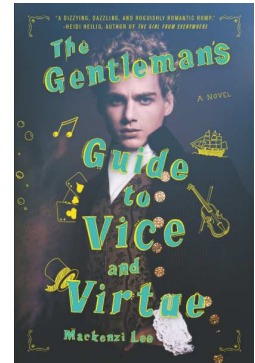
저자 : Mackenzi Lee

출판사: Katherine Tegen Books

발행일: 2017년 6월 27일

분량 : 52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독일 판권 계약 체결

* 데뷔 소설 『**Monstrous Thing**』으로 재능을 인정 받은 작가의 역사 ‘브로맨스’ 소설

* “18세기의 사회, 정치, 동성 관계에 관한 귀중한 조사 결과에 해적, 연금술이 가미되어 거부할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 「북리스트」

*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효모, 질병에 대한 편견 등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이야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몬티’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헨리 몬태규는 귀족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사람들이 ‘신사’라 일컫는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하지만 몬티는 그 운명을 보란 듯이 거부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처럼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왔다. 술을 퍼 마시고, 내키는 대로 여자든 남자든 만나서 사랑하고, 도박도 하며 하루하루 신나게 놀면서 즐기던 몬티에게, 이제 이 천국 같은 시절을 마감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 몬티가 열여덟 살이 되자, 아버지는 집안의 영지와 재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아들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망아지처럼 철없이 날뛰는 아들을 양전하고 착실한 청년으로 키우려고 영국 일류 부잣집 자제들만 다닌다는 최고급 기숙학교에 보내고 심하다 싶을 만큼 엄하게 꾸짖어도 별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몬티의 아버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1년 동안 유럽 곳곳을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가르치는 철학 수업도 들으면서 철부지 어린애 같은 시간들을 정리하고 돌아오라는 것이다. 몬티는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덩석 잡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정반대의 목표를 가득 세웠다.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와인을 맛보고, 더 신나게 놀아야겠다는 지극히 몬티다운 계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목표가 포함돼 있었다. 어릴 때부터 가장 절친한 친구로 지낸 퍼시에게 고백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두 번 다시 마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몬티와 퍼시는 모든 점에서 달랐다. 귀한 집 아들이고 백인인 몬티와 달리 퍼시는 고아

인데다 식민지 개척을 위해 바베이도스로 떠난 아버지가 그곳 원주민 여성과 사랑에 빠져 낳은 아이라 피부색이 갈색이었다. 하지만 뭐든 제멋대로 해야 직성에 풀리는 성격답게 몬티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치 따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퍼시와 그저 형제처럼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몬티는 그 절절한 사랑의 감정을 내내 감춰왔지만 이번 여행이 끝나면 퍼시가 학업을 위해 먼 곳으로 떠나게 된 만큼, 함께 떠날 여행 기간 중에 반드시 고백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다. 하지만 몬티의 이 계획이 뜻대로 돌아갈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 까다롭고 귀찮은 여동생 펠리시티가 두 사람의 여행에 함께하게 된 것부터 시작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철저한 몬티의 아버지는 여행 내내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예 차단하고 혹시라도 도를 넘어서는 짓을 할 경우 지금껏 몬티가 누려온 모든 특권, 부잣집 아들이라 가능했던 경제적, 사회적인 풍요로움을 다 거둬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여행을 시작하자 퍼시에 대한 애정은 더욱 강렬해지고,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어느 파티 날, 순간적인 충동에 몬티가 저지른 유치한 장난이 엄청난 사태를 일으키고 만다. 싸구려 장신구인 줄 알고 슬쩍 훔친 물건 때문에 퍼시, 펠리시티, 몬티 모두 범죄자로 몰려 무시무시한 수색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그때부터 세 사람은 낯선 유럽 대륙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몬티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처지에 놓인다. 동성애에 심지어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은 정신병원에 갇혀야 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던 18세기를 무대로 숨막히게 답답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정과 사랑, 예기치 않은 모험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소설이다.

잘생긴 외모, 재력, 집안 모든 것을 갖춘 주인공이 사회적으로 금지된 일들을 대담하게 몰고 나가는 과정을 통해 비논리적인 편견이 오히려 더욱 생생하게 드러나고,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등장하는 펠리시티도 의사를 꿈꿀 만큼 타고난 지성으로 몬티와 퍼시를 여러 번 위기에 서 구출해내면서 편견에 맞서는 또 다른 인물이자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다.

<저자 소개>

맥켄지 리(Mackenzi Lee)는 시몬스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도서작가 석사 과정을 마쳤다. 데뷔 소설 『Monstrous Thing』으로 2014년 PEN 뉴잉글랜드 아동 도서 신인상 (PEN New England Children's Book Discovery Award)을 수상했다.

제목 : THE ELEPHANT THIEF

가제 : 코끼리 도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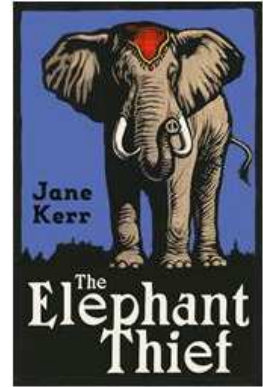
저자 : Jane Kerr

출판사: Chicken House Ltd

발행일: 2017년 3월 2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고전이 될 이야기.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결말과 함께, 덤보를 넘어서서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새로운 스타 코끼리가 탄생했다.” - 「타임」 지
- * “대니와 마하라자의 놀라운 여정은 어린 독자들에게 감동과 교훈, 즐거움을 모두 안겨주고 희망과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전한다.” - 「에딘버러 이브닝 뉴스」
- * “약하고 힘없는 코끼리와 아이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이 둘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에서 이 작품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텔레그래프」

코끼리는 거대한 덩치와 보기만 해도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는 긴 코와 그 양 옆으로 반짝이는 눈동자가 참 매력적인 동물이다. 하지만 외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특유의 서글픈 울음소리와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 같은 친근감은 오래 전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인간과 코끼리의 특별한 우정을 다룬 다양한 이야기들이 탄생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빅토리아 시대를 무대로 사람의 관점에서는 대부분 동물원의 인기만점 주인공이고 서커스 관객을 끌어 모으는 수익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코끼리와 작은 몸 하나 편하게 누일 곳 없는 떠돌이 소년의 감동적인 모험을 다룬 새로운 소설이 완성됐다. 자신의 의지나 소망과 상관없이 궁지로 내몰린 두 가엾은 주인공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술한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은 눈물과 미소, 큰 웃음을 모두 선사한다.

에딘버러 빈민가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대니는 큰 경매가 열리는 날, 아주 운 좋은 소매치기 상대를 찾아냈다. 두툼한 지갑을 손에 넣을 수 있으리란 생각에 잔뜩 들떠서 노린 그 대상, 하필 그 날 저지른 소매치기가 대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리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경매는 동물원을 운영하던 뽀우드라는 사람이 산더미 같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동물들을 처분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다. 뽀우드 씨가 어딘가 수상쩍은 이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도 경매장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대는 주제였지만, 이런 소란을 한꺼번에 잠재운 일이 발생했다. 경매 상품 중 하나로 데려와 큰 우리에 갇혀 있던 코끼리가 창살을 부숴버린 것이다. 대니가 주머니를 털려던 사람은 다름아닌 그 코끼리의 새 주인이 된 제임슨 씨였다. 맨체스터에서 동물원을 운영한다는 제임슨 씨는 대니의 약점을 교묘하게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코끼리가 우리를 부순 만큼 태워갈 수단이 사라진 곤란한 상황을 기막힌 홍보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는 대니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 인도 왕자인 척 연기를 하라고 제안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일

찍 여의고 친구라곤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전부였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제임슨 씨는 경매가 열린 에딘버러에서 맨체스터까지 코끼리 등에 올라 타고 이동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동물원을 홍보할 계획이었다. 그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소매치기라는 사실을 온 사방에 알리고 고발하겠다는 협박도 당연히 이어졌다. 어쩔 수 없이 제임슨 씨의 말대로하기로 한 대니는 열떨결에 인도 델리 출신의 왕자 ‘댄답’이 되어 코끼리 마하자라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인도인처럼 보이려 머리도 염색하고 터번까지 두른 낯선 모습으로 마하자라와 함께 가두 행진을 시작한 대니 일행에게는 제임슨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경매에서 제임슨 씨에게 마하자라를 빼앗기고 분통해하던 경쟁 동물원의 주인 올브라이트 씨가 걸어서 맨체스터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제임슨 씨의 호언장담을 비웃으며 거액을 걸겠다고 선언한 탓에 이들의 도보 여행에는 세간의 관심은 더욱 쏠렸다. 경쟁심에 불타오른 두 사람은 10일 안에 코끼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없다를 두고 자신을 동물원을 통째로 내놓는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가들 간의 거래와 별도로, 하루 아침에 인도 왕자가 된 대니와 무거운 몸을 끌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마하자라는 무수한 장애물과 마주친다. 여행이 성공리에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음모를 꾸미고, 대니는 에딘버러 소매치기 대장 스캐처드가 이렇게 먼 곳까지 떠나온 자신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두려운 마음에 괴로워한다. 이 험난한 여행을 이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고통의 기억을 똑같이 안고 있는 대니와 마하라자 사이에 깊은 우정이 피어난다. 둘은 과연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 내기에서 진 쪽이 이성을 잃고 화풀이를 하는 건 아닐까? 신문 기자들이 쫓아다니던 중 대니가 인도 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건 아닐까?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마하라자의 비밀도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코끼리가 에딘버러에서 맨체스터까지 걸어서 이동한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동물과 빈곤층에 대한 학대, 빈곤,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겨내는 따스한 우정의 힘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이야기다.

<저자 소개>

제인 커(Jane Kerr)는 웨일즈 북부 지역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첫 소설 『The Jones Family have a Picnic』을 출판했다. 언어 치료사로 일하다가 저널리스트 교육을 받고 신문, 온라인 매체, 라디오, BBC 프로듀서로 활약해 왔다.